

제 7장. 고려시대 의서의 편찬과 의학

<의학관련 자료 ; 2013.10.1>

A)개보 8년(광종 26, 975) 1월에 대사는 쇠하게 되자 고산으로 들어가기를 간청하였다. ...
대왕이 상의 공봉시랑 직문에게 특별히 선약을 가지고 가서 밤낮으로 간호하라고 명하였다.
대사가 말하기를 '노승의 병에는 성약이 없으니, 청컨대 시랑은 궁궐로 들어가 임금을 잘 보
살피라. 어찌 노승을 위해 산사에 오래 머물러 있겠는가(<서산 보현사 범인국사비> 『고려묘
지명집성』)

B)典醫寺. 掌醫藥療治之事. 목종 때에 太醫監이 있었고 여기에 監, 少監, 丞, 博士, 醫正
등의 관직이 있었다. 문종이 판사는 중 3품으로, 감은 1명 정 4품으로, 소감은 2명 중 5품으
로, 박사 2명과 승 2명은 모두 중 8품으로, 의정 2명, 助教 1명, 呪噤博士 1명은 모두 중 9품
으로 정하였으며 또 醫針史는 1명, 注藥은 2명, 藥童은 2명, 주금사는 2명, 呪噤工은 2명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司醫署로 고치고 관원들을 고쳐 정하였다. 提點은 2명인
데 겸임 관직으로 하고 그 품계는 정 3품으로, 승은 1명 정 3품으로, 正은 1명 중 3품으로,
부정은 1명 중 4품으로, 승은 1명 중 5품으로, 郎은 1명 중 6품으로, 直長은 1명 중 7품으로,
박사는 2명 중 8품으로, 檢藥은 2명 정 9품으로, 助教는 2명 중 9품으로 하였다. 그 후에 가
서 典醫寺로 고치고 제점은 폐지하고 승을 판사로, 郎을 注簿로 고쳤다. 공민왕 5년에 다시
太醫監으로 고치고 正은 監으로, 副正은 少監으로 고쳤고 또 檢藥을 폐지하였다. 11년에는
다시 전의시로 부르게 하고 감은 정으로, 소감은 부정으로 하였으며 검약을 다시 두었다. 18
년에 또다시 태의감이란 명칭을 복구하고 또 정, 부정을 감, 소감으로 고쳤다가 21년에 가서
전의시로 다시 고쳤고 이와 동시에 관직명을 정, 부정으로 고쳤다. (『고려사』 권76, 백관 1
전의시)

C)奉醫署. 御藥을 짓는 일을 맡는다. 목종 때에 尙藥局이 있었고 여기에 奉御, 侍御醫,
直長, 醫佐 등이 있었다. 문종이 봉어는 1명 정 6품으로, 侍醫는 2명 중 6품으로, 직장은 2명
정 7품으로, 의좌는 2명 정 9품으로 정하였고 또 醫針史는 2명, 藥童은 2명으로 정하였다. 충
선왕 2년에 掌醫署로 고치고 그 후에 奉醫署로 고쳤으며 정 6품의 승, 정 7품의 직장, 정 9품
의 의좌를 두었다. 공민왕 5년에 尙醫局으로 고침과 동시에 승은 봉어로 고쳤고 직장과 의좌
는 그냥 두었다. 11년에 다시 봉의서로 고치고 봉어를 영으로 고쳤으며 18년에 또다시 상의
국으로 고치고 (영을) 봉어로 고쳤다. 21년에는 다시 봉의서로 고치고(봉어를)영으로 고쳤다.
공양왕 3년에 典醫寺에 합쳤다. 이속은 문종이 書令史 2명, 算士 2명을 두었다.(『고려사』 권
77, 백관 2 봉의서)

D)東西大悲院. 목종 때에 使는 각각 1명을 두며, 부사도 각각 1명을 두고. 녹사는 각각 1
명을 두되(이상의 관직들은 모두)병과의 권무관직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이속으로서는 記事
는 2명을 두되 醫吏를 파견하고, 書者는 2명을 두기로 하였다. 충숙왕 12년에 왕이 교서를 내
려 이르기를 “혜민국(惠民局), 제위보(濟危寶), 동서 대비원은 본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으니 마땅히 이전대로 수리하여 질병(疾病)을 고쳐 주
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惠民局. 睿宗 7년에 판관 4명을 두되 本業(의업)과 散職을 서로 교체하여 임명하며 을과

의 권무 관직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충선왕 때에 혜민국을 시醫署의 관할하에 두었다. 공양왕 3년에 惠民典藥局으로 고쳤다(『고려사』 권77, 백관 2 봉의서)

E)이제 경진, 의서들에 통달한 학자와 공부에 열성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12목牧에 각각 經學博士 1명, 醫學博士 1명씩을 파견한다. 이들의 품행이 착실하고 교수 방법이 능란하여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반드시 그 공적의 대소를 심사하여 높은 벼슬에 발탁하여 추장하는 방책을 취할 것이다. 또 여러 주, 군, 현의 長吏와 백성들에게 가르칠 만한 자제들이 있거든 그들을 알뜰히 훈계해서 선생에게 배우도록 하라(『고려사』 권3, 성종 6년 8월).

F)東京留守官. 성종 때에 慶州를 동경으로 정하고 3품 이상의 留守使 1명과 4품 이상의 副留守 1명과 6품 이상의 判官 1명과 7품 이상의 司錄參軍事와 掌書記 각각 1명씩을 두었으며 8품 이상의 法曹 1명과 9품 이상의 醫師, 文師 각각 1명씩을 두었다(『고려사』 권77, 백관 2 외직).

G)여섯째로 백성들을 보살피 주어야 한다. 국가에서 동서 大悲院과 濟危寶를 특별히 설치하여 빈궁한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였으나 이 직무를 맡은 자들이 모두 책임이 아니었으므로 혹 흉년이 들어 자체로 살아 나가지 못하는 자라든가 병이 들어도 의탁할 곳 없는 자가 있어도 그들을 수습 구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백성을 사랑하는 나의 심정이 어떠하랴! 이제부터는 이부(吏部)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만한 인재를 선택하여 그에게 일임한 다음 사헌부로 하여금 그의 잘 하고 못하는 것을 감찰하여 잘 하는 자를 추장하고 못하는 자를 징계하게 하라!”(『고려사』 권18, 의종 22년 3월)

-중국 의서 도입과 교류

A)大中 祥符 9년(현종 7, 1016) 郭元이 하직하고 귀국할 때, 진종은 王詢(현종)에게 조서 7권과 … 經史·曆日·『聖惠方』 등을 하사하였다(『송사』 권487, 열전 외국3 고려전)

B)天禧 5년(현종 12, 1021)에 왕순이 告奏使로서 禮部侍郎 韓祚 등 179명을 보내와 사은하였다. 또 표를 올려 『음양지리서』 및 『성혜방』을 달라고 하여 모두 하사하였다(『송사』 권487, 열전 외국3 고려전).

C)元祐 7년(선종 9, 1092)에 黃宗慤(황종각)을 보내와 『皇帝鍼經』을 바치면서 구입해 가겠다는 서책이 많았다(『송사』 권487, 열전 외국3 고려전).

-의서의 편찬

A) 공의 이름은 영석이고, 자는 □□이며, 명주사람이다. ... 건통(요 1101-1110) 연간에 조음으로 처음 良醞丞同正이 되었다. ... 집에서 병을 다스린 지 13년이 지난 병술년(의종 20, 1166) 4월 8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78세이다. ... 일찍이 大宋과 新羅의 의학서적을 보면서 기이하고 중요한 것을 뽑아 책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름하여 『濟衆立效方』이라고 하니, 세상에 널리 전해졌다(<김영석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2001).

B) '무릇 인생에서 중히 여기는 것은 몸과 목숨일 뿐이다. ... 이에 옛 성현이 『本草』 · 『千金』 · 『斗門』 · 『聖惠方』 등 모든 방서를 저술하여 만백성의 생명을 구제하였다. 하지만 권질이 너무 호변하여 열람하기에 곤란했다. 질병이 시간을 끌어 만성이 될 것 같으면 의원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모든 서적을 뒤져서 그 방문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갑자기 중병을 얻어 창졸간에 위급해진다면 어느 겨를에 의원을 찾고 서적을 뒤질 수 있겠는가? 아예 정밀하고 요긴한 처방만을 채집하여 위급을 대비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만 못하다. 國朝에 茶房에서 수집한 약방문 한 질이 있는데, 수집한 지 오래라, 탈루되어 거의 유실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추밀상공 최중준이 이것을 보고 애석하게 여겨 끝에 이것을 인쇄하여 널리 보급할 것을 생각하고 이를 상계 아뢰니 상계서 혼연히 하락하였다. 공은 이에 2권으로 나누고 또 모든 방문 중에 가장 긴요한 것만을 첨부하여 사람을 시켜 선사하게 한 다음 이름을 [어의촬요]라 하고, 어명으로 서경유수관에 보내어 인쇄하여 세상에 유포하게 하였으니, 이 또한 聖朝에서 백성보기를 赤子보듯하는 어진 정책이며, 또 士君子가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뜻이기도 하다. ... 병술년(고종 13, 1226) 4월 일에 서문을 쓰다(<新集御醫撮要方序> 『동국이상국집』).

C)永錫의 증손은 金弁이며 일명은 김기(琪)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였고 고종 때에는 정언, 어사 벼슬을 지내고 안무사로 충청도에 부임하였으나 매일 술만 마시고 일을 보지 않았으며 또 백성들의 재물을 굶어 모아서 권력 있는 고관에게 뇌물 주는 밀천으로 삼으니 사람마다 모두 이를 갈며 그를 원망하였다. 김변은 벼슬이 判少府監事に 이르렀다(『고려사』 권96, 김인준전).

D)金弁, 初諱琪 又諱璜 金紫光祿大夫 判小府監事 上將軍兼尙書戶部事(『강릉김씨세보』 -).

· 대장도감의 존재

E)昔大藏都監 刊行是書 歲久板朽 舊本罕見...今義興監群崔自河 思欲重刊以廣其惠 乃出私藏善本 告諸監司李公之剛 李監司卽命鋟梓于崔之任縣 以遂其志 乃以閏五月始役 至七月二十日斷手焉 皇明永樂丁酉七月日1)(『향약구급방』, 윤상의 발문)

F)三月 傳旨曰 典農司所收諸寺社及有券功臣田租皆還給其餘田租移入龍門倉以米三百石分賜大藏都監禪源社(『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조세 충선왕 후원년 3월).

G)都堂請罷大藏都監(『太祖실록』 권1, 1년(1392, 洪武)25年) 8月 2日 辛亥).

<고려의학 자료(2013.10.3; 보충)>

1) 태종 17년(1417).

A)9월 초하루 기사일에 충주목에서 새로 인각한 黃帝八十一難經, 川玉集, 傷寒論, 本草括要, 小兒巢氏病源, 小兒藥證病源, 十八論, 張仲景五臟論 등 99권을 바쳐 왔다. 왕이 조서를 내려 이것을 비서각에 보관하게 하였다(『고려사』 권8, 문종 12년 9월).

B)2월 갑술일에 안서(安西-해주) 도호부사 도관 원외랑 異善貞 등이 새로 조각한 肘後方(一의학 서적) 73판, 疑獄集 11판, 川玉集 10판을 바쳤으며, 知京山府事 전중내급사 李成美는 새로 조각한 隋書 6백 80판을 바쳤다. 왕이 명령을 내려 이 서적들을 비서각에 비치하게 하고 그들에게 각각 의복을 주었다(『고려사』 권8, 문종 13년 2월).

C)정숙침의 아들은 鄭晏인데 그 전 이름은 鄭奮이었다. 그는 총명 영리하였으며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陰陽, 산술, 醫藥, 音律 등에 모두 정통하였다. 정안이 진양(晉陽) 원으로 나갔다가 모친이 연로하다 하여 사직하고 하동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최이가 그의 재능을 사랑하여 국왕에게 아뢰어 國子祭主를 주게 하였다(『고려사』 권100, 열전 정세유전).

D)중풍·반신불수조가 되는 증삼 ...[제중입효방]편풍에 의한 수족불수와 동통을 치료하는 처방 술잎(松葉) 5말 가량에 소금 2되를 넣어 찢 뒤에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어 수족이 불편한 통증의 부위를 찜질한다. 식으면 다시 찌는데, 치유될 때까지 다시 반복한다.(『향약집성방』 권3, 風門, 중풍·반신불수조)

E) ‘무릇 인생에서 중히 여기는 것은 몸과 목숨일 뿐이다. ... 이에 옛 성현이 『本草』·『千金』·『斗門』·『聖惠方』 등 모든 방서를 저술하여 만백성의 성명을 구제하였다. 하지만 권질이 너무 호변하여 열람하기에 곤란했다. 질병이 시간을 끌어 만성이 될 것 같으면 의원을 찾는 것이 가능하고, 모든 서적을 뒤져서 그 방문을 찾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갑자기 중병을 얻어 창졸간에 위급해진다면 어느 겨를에 의원을 찾고 서적을 뒤질 수 있겠는가? 아예 정밀하고 요긴한 처방만을 채집하여 위급을 대비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만 못하다. 國朝에 茶房에서 수집한 약방문 한 질이 있는데, 수집한 지 오래라, 탈루되어 거의 유실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추밀상공 최종준이 이것을 보고 애석하게 여겨 끝에 이것을 인쇄하여 널리 보급할 것을 생각하고 이를 상계 아뢰니 상께서 흔연히 하락하였다. 공은 이에 2권으로 나누고 또 모든 방문 중에 가장 긴요한 것만을 첩부하여 사람을 시켜 선사하게 한 다음 이름을 [어의촬요]라 하고, 어명으로 서경유수관에 보내어 인쇄하여 세상에 유포하게 하였으니, 이또한 聖朝에서 백성보기를 赤子보듯하는 어진 정책이며, 또 士君子가 중생을 널리 구제하는 뜻이기도 하다. ... 병술년(고종 13, 1226) 4월 일에 서문을 쓰다(<新集御醫撮要方序> 『동국이상국집』).

F)일찍 『삼화자향약방』이 있어 자못 긴요하나 그 생략된 것을 흠으로 알았더니 지난번 지금 판문하 권공 仲和가 서찬이란 사람을 시켜 더욱 모으고 편집해서 『향약간이방』을 저술하였으나 그 책이 오히려 세상에 널리 쓰이는바 못되었다(『鄉藥濟生集成方』, 서문)

『비예백요방』 · 『향약구급방』의 처방 비교.

冷痢·熱痢(孫眞人)은 ‘모든 이질에는 반드시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면 성인이라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했다. 대변 색이 푸른 이질이 냉리이며, 붉고 누른 이질은 열리이다(『향약구급방』 중권 냉열리)

冷痢·熱痢 및 적백리 처방(孫眞人)은 ‘모든 이질에는 반드시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면 성인이라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했다. 대변 색이 푸른 이질이 냉리이며, 붉고 누른 이질은 열리이다(『의방유취』 권141, 제리문6 비예백요방)

여러 날 앓은 사람은 3일간 붙이되 하루에 한 번씩 바꾸어 주고 나오면 그친다. 이 처방이 지저분하여 귀한 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우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어떤 처방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외의 다른 처방은 도리어 쓸모없는 관원이나 의례적인 주석 정도라고 비유할 수 있을 뿐이다. 의학자들은 마땅히 이 처방을 잘 익혀서 여러 가지 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비급천금요방』 권66, 丁腫方).

여러 날 앓은 사람은 3일간 붙이되 하루에 한 번씩 바꾸어 주고 낫는다. 손진인은 ‘이 처방이 지저분하여 귀한 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우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어떤 처방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외의 다른 처방은 도리어 쓸모없는 관원이나 의례적인 주석 정도라고 비유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향약구급방』 중권, 癰疽)

여러 날 앓은 사람은 3일간 붙이되 하루에 한 번씩 바꾸어 준다. 손진인은 ‘이 처방이 지저분하여 귀한 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우나, 병을 치료하는 신속함은 어떤 처방도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의방유취』 권178, 癰疽文9 비예백요방)

『신집어의촬요방』, 『비예백요방』, 『향약구급방』의 화상 치료 비교

白芷·황기 11종

계화, 석회 등

柳白皮, 소금물, 숯가루 3종

<의학관련 자료 ; 2013.10.8>

A)전라도 按廉使 金希善이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였다. “外方에는 醫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원컨대, 각도에 醫學教授 한 사람을 보내어 界首官마다 하나의 醫院을 설치하고, 양반의 子弟들을 뽑아 모아 生徒로 삼고, 그 글을 알며 조심성 있고 온후한 사람을 뽑아 敎導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鄉藥으로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經驗方을 익히게 하고, 교수관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 권장하고, 약을 採取하는 丁夫를 定屬시켜 때때로 藥材를 채취하여 處方에 따라 제조하여,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救療하게 하소서.”(『태조실록』 권3, 2년(1393) 1월 29일 을해).

B)의약을 마련하여 큰 병과 작은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은 정사의 할 일이다. ... 우리나라가 중국과 멀리 떨어져서 이 땅에서 생산하지 않은 약은 구하기 어려운 것을 몹시 걱정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인지 우리나라 풍속이 흔히 한가지 풀을 가지고 한가지 병을 고치는데 특효를 본다. 일찍이 『삼화자향약방』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요령만 뽑아 놓아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약식으로 된 것이 결점이라 하였는데, 지난번 현판문하 권공 仲和가 徐贊이란 사람을 시켜 거기에 여러 방문을 모으고 편집해서 『향약간이방』을 저술하였으나 그 책이 오히려 세상에 널리 쓰이는 바 못되었다. ... 서울에다 제생원은 설치하고 하인을 두어 본국에 생산되는 약제를 채취해서 약을 제조하여 ... 각 도에도 또한 의학원을 설치하고 교수를 보내어서 이 방문과 같아 약을 쓰게 하여 영구히 그 혜택을 받게 하고, 또 그 방문이 미미한 곳이 있을까 염려하여 곧 權公에게 특명으로 약국관을 시켜서 다시 여러 방문을 상고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한 것을 뽑아서 부분 별로 같은 편을 골라 엮어 놓고, ‘향약제생집성방’이라 하고, 그 끝에 소와 말 고치는 방문도 붙였다(『동문선』 권91, 향약제생집성방서).

C)삼화자방(『향약집성방』 권2, 풍병문 유평)

九味酒, 治手足不遂及皮膚遊風刺風

獨活(땃두릅), 五加皮, 柏葉, 松葉, 牛豚, 射干(다년초), 苦蔘(쓴너삼), 菖蒲, 各절 2승반, 우를 물 12말로서 4두를 煮取하여 粘米, 경미 각 1두반과 細麵少許로써 酒를 作하여 性에 따라서 마신다.

D)의서는 읽기가 쉽지 않고, 의술은 공교하기 어렵다. 내가 이 논지를 가진 것이 오래되었다. 세상의 의원들이 그 글의 구두를 뛰어 읽지도 못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의술에 정밀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이 무리를 미워한 지 또한 오래되었다. 나라에서 10개학과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게 하니, 의과가 그 중에 하나이다. 제조관 삼봉 鄭藝文이 이르기를 ‘의원은 마땅히 진맥의 착오가 없는 후에야 처방에 효험이 있다’하고, 제가의 설을 상고하여서 그림을 만들고, 그 범례를 해석하여 요결을 하여 그 곡절을 극진히 하여서 診脈圖라 이름 짓고, 부족한 나에게 그 아래에 기록하기를 명하니, 내가 의학에 꽤 많은 연구가 있었다...(『동문선』 권105, 진맥도지).